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당당하다, 자유롭다, 60대 여배우

윤여정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처음엔 기대 안 했는데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 관객이 많이 들어서 손익분기점이라도 넘었으면 좋겠네요.”

여섯 명의 여배우가 시끌벅적하게 모인 영화 ‘여배우들’ 속 윤여정은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딸 같은 후배 고현정은 “선생님 늙었다는 말 좀 그만 하시라”고 타박할 정도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최근 만난 윤여정도 실제로 “이제 늙어서”라는 말을 자주 했다.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워 무는 모습도, 편하게 하자며 시원스럽게 하는 말도, 영화 속 여정이 그대로 눈앞으로 옮겨 온 느낌이다.

“난 현실주의자예요. 세월을 잡는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늙으면 편해지고 관용도 생기고 한다는데 그거 다 위로예요. ‘곱게 늙는다’고 하는데 곱게 늙을 수가 없어. 오히려 고집도 세지고 편견도 많아지고 고까워하고 그래요.”

영화에서 40년 차이가 나는 막내 김옥빈에게 담배를 빌려주고 맞담배를 피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 인기가 많다고들 하기에 직접 물어봤어요. 현정이는 ‘선생님이 밥을 잘 사줘서’ 좋아한다던데? 그래도 나랑 맞먹으면 안 되잖아. 점점 버릇이 없어져요.”

말은 ‘애들이 날 만만하게 본다’고 하면서도 애정이 묻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것도 많죠. 내가 2PM을 좋아하는 건 못하지만, 애들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해하려고 해요. 늙으면서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벽을 자꾸 쌓으면 내가 외롭잖아요.”

딸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고현정은 18년 전 처음 함께 드라마를 찍었다.

“따로 세트에서 촬영하는데 내가 촬영 마치고 일어나니까 다른 세트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 배우가 없거든요. 그때 처음 감동했죠.”

여배우들의 영화를 찍고 싶다는 이재용 감독의 아이디어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감독의 ‘절친’ 윤여정과 ‘행동대장’ 고현정 덕분이다.

“친하게 지내던 임상수 감독이 프랑스에 가면서 이재용 감독을 소개해 주고 갔어요.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고. 이 감독이 하던 영화가 엎어져 그도 백수, 나도 백수였고 현정이도 ‘선덕여왕’ 하기 전 백수라 같이 모여 술 먹다가 나온 얘기죠.”

영화 속에서 배우들은 실명으로 등장해 실제의 자신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윤여정도 인생의 가장 큰 상처라는 이혼과 여자나 배우로서 약점일 수밖에 없는 콤플렉스를 말하며 웃는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60 넘고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술 먹어서 막 했나 봐.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해요.”

영화의 끝 무렵. 배우들은 ‘어떤 여배우로 남고 싶은지’에 대해 말한다. 윤여정은 동료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관객은 만들어진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허상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안 좋았던 일 이번 영화로 다 날려버리자구요. 선생님이 중심에 계셔서 우리 영화가 더 빛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셔도 돼요’라는 이미숙의 문자를 읽어주며 윤여정은 “이번 영화의 보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가수 김종민 ‘1박2일’ 복귀

가수 김종민이 KBS 2TV ‘해피선데이-1박 2일’에 2년 만에 복귀한다.

KBS는 “2007년 11월15일 공익근무로 복무를 시작한 김종민이 오는 18일 소집해제 이후 ‘1박 2일’에 합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종민은 2007년 8월 ‘1박 2일’ 첫회부터 공익근무 직전까지 제작에 참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종민은 “더욱 탄탄해진 팀워크와 촬영 분위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이 합류해도 ‘1박 2일’ 기존 멤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귀여운 소년들 남자가 되다

그룹 ‘유키스’ 7인조 재편

춤·스타일 강한 이미지로

그룹 2PM이 ‘짐승돌(짐승+아이돌)’이라면 그룹 유키스는 ‘해피돌(해피+아이돌)’로 불렸다. 그러나 유키스는 이제 달라졌다.

지난해 데뷔곡 ‘어리지 않아’를 부르며 귀여운 소년으로 다가온 이들은 최근 세번째 싱글 ‘콘티 유키스(Conti Ukiss)’를 발표하면서 멤버 구성, 음악, 춤, 스타일까지 강한 남자의 이미지로 환골탈태했다.

애초 6인조에서 멤버 기섭을 추가로 영입해 7인조로 재편했고 스모키 메이크업에 수트를 입고 무대에 오른다.

용감한형제가 작곡한 타이틀곡 ‘만만하니’도 사운드가 강한 일렉트로닉 갱스터 힙합이다. 이 곡은 일명 ‘강남(강한 남자) 댄스’라는 안무와 함께 온라인에서 큰 폭의 상승세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 ‘천하무적야구단’으로 유명해진 멤버 동호 덕도 있다.

홍콩 출신인 알렉산더는 “두 장의 음반에서 계속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니 사람들이 지겨웠을 것”이라며 “변신을 하니 이제 ‘귀엽다’에서 ‘멋있다’로 반응이 달라졌다. 유키스로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현 역시 “지난 음반 성적이 서운했다”며 “당시 매일 인터넷을 보면서 심심한 반응에 섭섭했다”고 웃었다.

멤버들도 이제 대중의 눈에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보통 아이돌 그룹은 멤버 중 몇몇이 인기를 끌면서 그룹의 인기가 동반 상승한다.

일등공신은 김C, 이하늘, 임창정, 김창렬 등과 함께 ‘천하무적 야구단’에 출연한 그룹의 막내인, 중학교 3학년생 동호다.

“출연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요즘 꿈에서도 야구를 해요.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잠꼬대로 스윙을 했대요. 스케줄이 없을 때는 매일 오전 10시에 야구 연습을 하거든요. 형님들과 나이 차가 많아 세대차가 클 줄 알았는데 요즘 걸그룹 트렌드도 줄줄이 꿰고 계시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해요.”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유키스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데뷔 때부터 아시아 진출을 선언했고 사실 국내보다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 더 큰 인기다.

그 결과 기범과 일라이는 내년 1월 방송될 태국 채널9 드라마 ‘같은 태양 아래 지평선’에 주인공으로 참여해 촬영을 마쳤다.

재미교포인 케빈은 아리랑TV 간판 프로그램 ‘팝스 인 서울’을 진행하고 있다. ‘분당 야탑고 얼짱’으로 유명했던 기섭은 5일 첫 방송 될 케이블 채널 코미디TV ‘얼짱 시대 시즌 2’에 출연한다. /연합뉴스